

목어

미당의 얼굴

내 방에는 미당 서경주 선생의 친필 액자 하나가 걸려있다.

한송이 국화꽃을 / 피우기 위해 /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의 유명한 시 '국화 옆에서'의 한 구절이 독특한 필치로 쓰여 있다. 내가 그에게서 이 글을 받은 지 25년 정도가 되었으나 그냥 간직하고 있다가 작년에야 겨우 표구사에 맡겼다.

어느 날 느닷없이, 그도 나이가 꽤 많이 들어 이승을 떠날 준비를 하겠구나 생각하니 불현듯 표구할 생각이 일었던 것이다.

사람은 물론 들과 호수, 연꽃까지도 그는 모든 만물을 소중히 여겼고 또한 그들이 자신과 더불어 하나를 이루는 존재였다. 이같이 '만남'과 '하루'를 주제로 한 불교적 시상을 간직했던 시인 미당은 그래서 시 못지 않게 인품이 매우 아름답고 후덕했다.

몇 달 전 선생의 사당동 맥을 찾았을 때 선생은 몸져 누워있는 아내를 보살피고 있었다. 꺼질한 모습으로 넓은 집을 홀로 지키던 그는 냉장고에서 손수 마실 것을 꺼내와 권했다. 그 걸 걸한 웃음은 예나 다를없이 정겨웠다.

그는 젊은 시절, 영호대중사의 문화에서 불교와 문학을 수학하며 스님에게서 크게 영향을 받은 터였는데, 당시 내로라 하는 문인이나 경사치고 큰스님 문하를 오가지 않는 사람이 드물 정도였다고 한다.

내가 선생과 자주 만나던 때는 70년대 말, 영호대중사의 문집을 준비하는데 입적한 윤기대강백과 선생, 그리고 필자가 한동안 머리를 맞대고 번역과 문학을 다듬는 소임을 맡았다.

그때의 분위기는 마치 부처님 경전을 결집하는 그것과도 같이 경건하면서도 신심이 굵어 울랐다.

얼마 전 그분이 86세로 이성의 몸을 벗었다. 그리고 선운사 스님들의 독경속에 고향 고창의 아담한 동산에 묻혔다. 한편에서는 한때 행적이나 종교적 입장차이로 선생을 폄하하려는 의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투사연 하는 그 누구도 오랜 수행을 거친 듯한 선생의 그 아름답고 후덕한 얼굴을 담은 사람을 나는 그다지 쉽게 만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이 참 그리다.

도수 (정업도량 회주 · 본지논설위원)

잇단 방북 · 동시법회 추진

올 상반기 남북불교교류 '전망 밝다'

올해 상반기 남북불교교류의 전망은 밝다는 게 남북불교교류추진본부(이하 북교)와 단체인 전방이다. 특히 지난 해 12월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 대표단과 회동에 참여한 스님들은 이 구동성으로 "우리측의 잘못을 지적하는 듯한 태도가 없어졌다"며 "분위기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음을 느꼈다"고 평가했다. 한마디로 조불련의 부드러운 태도가, "느낌이 좋았다"는 것이다.

"조불련 태도 부드러워졌다"

조계종과 진각종 평불협 등 주요 종단과 단체에서 1월중 조불련을 수신자로 지정해 월동생활품을 지원하는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선 1월중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대표단의 방북이 예상된다. 올해 조계종-조불련간 교류를 논의하기 위한 방북이다. 조계종은 지난 12월 조불련과 베이징 회동 때 조종의 교류 방안을 북한에 제시했으며, 이에 대한 조불련의 결심을 얻어내기 위한 방북이다. 조불련이 조계종의 제안을 수용하면 방북하지 않을 수도 있다.

통일토론회 열릴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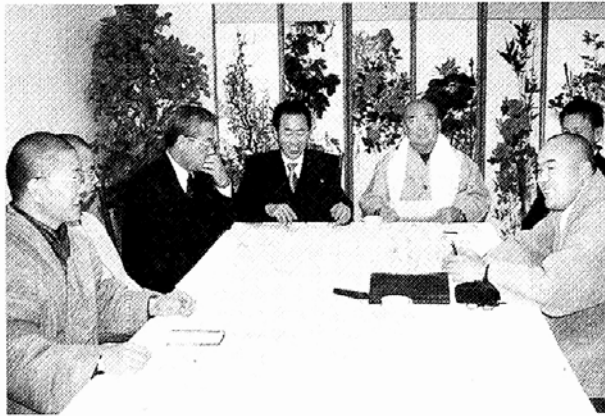
종단협의회 대표단의 방북은 3월로 예정돼 있다. 통일토론회를 논의하기 위한 방북이지만, 남쪽의 불교를 대표하는 종단협의회 대표단의 최초의 방북이라는 점에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어 5월 말 또는 6월 초 남북불교도 통일토론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토론회는 지난 해 3월부터 조불련과의 의견을 모은 사안으로 지난 해 열기로 했으나, 북측의 연기 요청으로 미뤄졌

다. 지난 12월 북경 회동에서 조불련이 장소를 금강산으로 하자고 제안해온 정도로 북측에서도 토론회를 개최하는 데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북경 회동에서는 남북 양측이 비용을 비롯한 매우 세부적인 부분까지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님 오신날과 6·15, 8·15를 맞아서는 남북불교가 장소를 달리하지 않고 동시 공동법회를 봉행한다. 부처님 오신날과 8·15는 이미 두세 차례 공동법회를 봉행한 적이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 1주년 기념 공동법

1월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방북
3월	종단협 대표단 방북
5월	부처님 오신날 동시법회 남북불교도 통일토론회
6월	6·15 공동선언 동시법회
8월	8·15 동시법회



◇지난해 12월 중국 베이징에서의 종단협 대표단-조불련 회동 장면. 올해 남북불교교류는 예년보다 더욱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 봉행은 조불련이 제안한 것이다.

남한 종교대표들의 방북도 다시 추진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동안 목사는 4일 만나 남한 종교대표들이 북한을 방문하면 통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에 종교대표들의 방북을 성사시키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문화관광부도 종교대표들의 방북 계획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한 종교대표 방북 재추진

신계사 복원을 위한 첫 삽을 뜰 가능성도 있다. 신계사 복원과 관련, 금강산 개발권을 가진 현대아산에서는 이미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 50억원 가까운 예산 마련이 여의치 않아 지난 해부터 미뤄오고 있으나, 현대아산과 조계종이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고 있다. "이르면 부처님 오신날 이전에 기공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조계종과 현대아산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a.com)

20년동안 주요종단 '자리매김'

전태종 총무원장 5대째 역임 운덕 스님

전태종 제12대 총무원장에 현 원장인 운덕스님이 다시 임명됐다.

운덕 총무원장은 이번 유임에 따라 81년 1월 7대 원장에 임명된 이래 5대째 계속 총무원장직을 역임하게 됐다. 운덕스님은 80년 불교계에 불어닥친 10.27 법난의 한파로 종단의 존폐가 위태롭던 지난 81년 1월 총무원장에 임명된 이래 현재까지 20년간 재임하며 신생종단인 전태종을 한국불교의 주요 종단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평을 얻고 있다.



상월대조사 유지 계승 종단내 폭넓은 신임

운덕스님의 20년 연속 총무원장 재임은 우선 한국불교의 대표 종단인 조계종과 태고종의 역대 총무원장 대부분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종도하차한 것과 대비돼 매우 이례적인 일로 비춰진다. 조계종은 현 정대 총무원장이 30대(47세)인 그동안 임기를 제대로 채운 스님은 의현스님과 월주스님 단 2명에 불과하고 태고종 역시 4년 임기를 채운 총무원장은 지난해 퇴임한 인곡스님 한 명뿐이다. 이처럼 큰 종단들의 총무원장들이 단명한 것은 종단들이 그만큼 불안정하고 '흔들기'가 심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그러나 전태종은 종파불교 성격이 강한 특유의 종단 분위기와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의 유지를 계승한 수제자로서 대조사의 창종정신을 일관되게 신앙하고 있는 운덕스님이 종단내에서 폭넓게 신임을 얻고 있어 장기집권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운덕스님은 외유내강(外柔內剛)형으로 온화하고 원만한 성격이나 한번 하기로 결심하면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강한 추진력을 지녔기에 20년 동안 전태종의 역사에서 큰 획을 그은 대형 불사들을 원만히 이끌어 온 점도 총무원장직을 계속 수행하게 한 동인(動因)으로 작용했다. 특히

불교교육의 중요성을 인식, 재가불자를 위한 금강불교대학을 설립해 수많은 인재를 길러냈으며, 나아가 4년제 정규대학인 '금강대학'의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는 등 종단발전을 위한 각종사업에 진력한 점도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온화하고 원만한 성격 강력한 추진력도 겸비

또한 국제포교에 관심이 많은 운덕스님은 전태종이 중심이 되어 중국과 일본의 전태종과 교류를 강화해 이른바 '황금의 유대'를 이루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매년 한 중일 미얀마 등 국제적인 불교학자들이 동참하는 전태종학술회의도 빠짐없이 개최해 세계적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다.

종단협 사무총장 홍파스님(법음종 총무원장)은 "전태종이 창종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해 중세를 확정한 것은 중창조 상월스님의 유지를 계승실현하고자 한 운덕스님이 독특한 전태종만의 승가기풍을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어 중무행정을 펴왔기 때문인 것"이라며 "국제불교교류나 대 사회적 불교활동에 있어서도 매우 적극적"이라고 운덕스님을 평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a.com)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0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a.com 불교소셜 '마하물'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마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2001년 '문명간 대화의 해'

유엔 '인류보편윤리' 제정 추진

문명권 아우르는 '공동가치' 주목

유엔이 2001년을 '문명간 대화의 해'로 결정했다. 과거 대립의 역사를 반성하고, 문명간 대화를 통해 이해를 공존과 화합의 원년으로 만드는 데 인류 모두 앞장서자는 것이다.

'문명간 대화의 해' 지정을 처음으로 제안한 모하마드 하타미 이란 대통령은 99년 유엔총회에서 제안 연설을 통해 "교통, 통신의 발달로 국경과 민족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어, 지금까지 고립적으로 발전해

온 문명들이 서로 소통하지 않고서는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하버드대 새뮤얼 헌팅턴 석좌교수는 1996년 <문명의 충돌>이라는 저서에서 각 문명권의 대립과 갈등이 냉전 이후 국제관계의 주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가까운 미래에 문명간의 대화를 통해 보편적 윤리와 가치를 세우는 것이 이제 인류 모두의 과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헌팅턴 교수의 저서는 특히 기술발전,

경제운동방식, 통치체계, 사회구조 등에 따라 문명권을 나눈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가치체계, 그것도 종교를 결정적인 척도 삼았다는 데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 헌팅턴 교수가 구분한 주요 문명권은 기독교 동방정교·이슬람·유교·힌두·불교·문명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이 '문명간 대화의 해'로 지정한 2001년 한 해 동안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의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욱이 '문명간 대화의 해' 기념 사업의 진행을 맡은 유네스코는 첫 사업으로 각 문명권을 아우르는 '보편적 가치'를 제정해, 선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유엔이 현재의 세계인권선언(48년 제정)을 보완하는 새로운 윤리강령을 채택하기 위한 준비작업이기도 하다.

유네스코는 이미 1999년 9월에 '보편적 가치 제정' 관련 보고서와 함께 '21세기 윤리를 위한 공동의 틀'이라는 초안을 만들었

다. 여기에서는 21세기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윤리의 기본 원칙으로 자연의 자생능력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자연 이용, 권리와 책임의 자유로운 행사에서 인간의 자기 실현,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보완, 정의에 기초한 평화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유네스코는 오는 4월 리투아니아의 수도인 빌뉴스에서 '문명간의 대화'를 주제로 대규모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도 서구에서 도입된 민주주의와 동아시아 전통의 상호보완을 논의하는 학술회의를 10월 개최할 예정이며 인류 공동의 가치를 논의하는 국제 포럼도 계획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a.com)

佛紀 2545년 (辛巳年)

이천만 불자가 하나되어 희망찬 새해를 만들어 갑시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웅종

중정 영산 일공

- | | | | | | | | |
|---------|----|----------|----|---------|----|--------|----|
| 고시위원장 | 법신 | 승정원장 | 보인 | 총무원장 | 법륜 | 광주총무원장 | 혜림 |
| 원로원부위원장 | 송산 | 중의회 의장 | 성관 | 총무부원장 | 진광 | 부산총무원장 | 도광 |
| 원로원 위원 | 선명 | 교육원장 | 벽봉 | 총무부부위원장 | 보대 | 인천총무원장 | 승혜 |
| 원로원 위원 | 효계 | 포교원장 | 성견 | 총무부부위원장 | 체체 | 경남총무원장 | 은혜 |
| | | 중앙비구니회회장 | 성월 | 총무부부위원장 | 체체 | 진남총무원장 | 정광 |
| | | | 대 | 총무부부위원장 | 체체 | 충청총무원장 | 의 |

▶ 서울시 구로구 구로 2동 704-39호 전화 : (02) 853-0531 / FAX : (02) 853-0532